

전갑수 광주체육회장, 야구소프트볼협회 감사패 수상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과 전갑수 광주광역시체육회장 사진

/광주 기획홍보팀 제공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유소년 야구 발전 지원 감사 전갑수 광주체육회장 “스포츠 도시 광주 만들 것”

전갑수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이 대한민국 유소년 야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5일 무등경기장을 방문한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3회 대통령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결승전 경기 종료 후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양해영 회장을 비롯해 김성한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장 등 야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전갑수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전갑수 회장이 취임 이후 광주 야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온 점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지난해에 이어 '대통령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유소년 저변 확대와 지역 야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양해영 회장은 "전국 유소년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광주 체육발전을 위한 전갑수 회장의 노력은 대한민국 야구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갑수 회장은 "광주와 호남 야구팬들에게 뜻깊은 무등경기장에서 미래 대한민국 야구를 이끌 유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국대회를 유치·개최해 지역 체육발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유소년 선수들은 열정적인 경기로 대회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무등경기장은 주말 동안 선수와 학부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활기를 띠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역 스포츠 인프라와 광주 야구의 역사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가 선수들은 수준 높은 경기 운영과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야구 관계자들은 유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지원이 한국 야구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기자

광주 서구, 라이즈 연계 지역혁신 성과 '톡톡'

외부재원 39배 유치, 4억7700만원 확보 K-뷰티·관광 베트남 방송 홍보 성과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으로 외부재원 유치와 주민 체감형 프로그램 운영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20개 부서가 참여해 7개 대학과 함께 취·창업, 돌봄,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4개 협업 사업을 추진했다. 총사업비는 4억8900만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97.5%인 4억7700만원을 라이즈 사업으로 확보해 자체 재원 대비 약 39.4배의 외부재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주민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기반을 확대했다는 평가다.

대표 성과로는 서구 대표 평생학습 사업인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세컨드)'과 라이즈 사업의 연계다.

서구는 관내 대학이 없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구 전역을 하나의 학습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남부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와 협력해 주민 맞춤형 교육 9개 과정을 운영했다.

그 결과 수료율 85%, 자격증 취득률 77%를 기록하며 주민들의 실질

적인 직업 역량 강화로 이어졌다. 또 자동차 자가정비, 스포츠 테이핑·마사지 전문가 양성 등 생활 밀착형 전문 강좌를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94% 이상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홍보 성과도 이어졌다. 서구는 광주보건대학교 베트남 유학생들과 함께 서구의 K-뷰티와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베트남 국영방송 하노이TV에 송출했다.

이를 통해 해외 현지인을 대상으로 서구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도 추진 중이다. 서구는 조선이공대학교, 호남대학교와 함께 ▲범죄예방 안심 환경 조성 연구 ▲주민 주도의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개선 등 생활 실험실을 운영하며 대학의 전문 역량을 지역 현안 해결에

적용하고 있다.

서구는 올해 라이즈 연계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보건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호남대학교 등 협력 대학과 총사업비 약 13억3000만원 규모의 73개 사업 추진을 협의하고 있다.

이호준 기획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 라이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 체감형 상생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지역정주 여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민 체감형 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라이즈 사업 성과와 주민 맞춤형 교육, K-뷰티·관광 글로벌 홍보 활동 모습

/광주 서구청 제공

제65회 2026. 4. 10.(금) ~ 4. 13.(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4회 2026. 4. 22.(수) ~ 4. 24.(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구례군공설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제65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 제34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구례군